

6월 12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6월 12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미 증시, 지표개선에 반등..다우 0.3%↑	경기지표 개선과 더불어 미 국채 수익률 하락이 투자심리를 북돋아 뉴욕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31.90포인트(0.37%) 상승한 8,770.92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9.29포인트(0.5%) 오른 1,862.37을,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5.74포인트(0.61%) 상승한 944.89를 각각 기록했다. 뉴욕시는 오름세로 출발했다. 개장전 발표된 5월 소매판매 지표와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개선세를 보이면서 리세션 완화 및 경기회복 기대감을 자극하며 오름세로 출발. 여기에다 최근 금리상승 우려감을 촉발했던 미국채 수익률이 이날은 하락세를 보이며 투자심리에 도움을 줬음. 특히 이날 오후에 실시된 110억달러 규모의 30년물 미국채 입찰에서 이전보다 매수세가 강했다는 소식도 투심(投心)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음.
유가 72달러 진입	국제유가는 배럴당 1.35달러(1.9%) 상승한 72.68달러를 기록했다. 유가는 장중 73달러선을 넘어서기도 했음. 이 영향으로 셰브론과 코노코필립스 등 에너지관련주들이 1~2% 안팎의 오름세를 기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올해 전세계 원유 수요량을 상향조정한 점이 유가에 영향을 미쳤고 IEA는 올해 원유 수요량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일평균 12만 배럴 많은 일평균 8,330만배럴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음. 국제유가는 작년 7월 투기적 수요가 가세해 147달러까지 상승한 이후 글로벌 리세션 여파로 급락, 올 1월 35달러선까지 밀리기도 했음. 그러나 최근 경기회복 기대감과 미달러화 약세 영향으로 이틀전 70달러선을 돌파한 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음.
美 5월 소매판매 0.5% ↑..3개월만에 상승	미 상무부는 5월 소매판매(계절조정)가 3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전월 대비 0.5% 늘었다고 밝혔음. 또한 0.4% 감소한 것으로 발표됐던 전월수치도 0.2% 감소한 것으로 수정되었음. 5월 소매실적은 시장의 전망치에도 부합했음. 블룸버그가 조사한 시장의 컨센서스는 0.5% 증가였고 전월의 경우엔 증가세가 점쳐졌지만 감소세를 보여 실망감을 안겨줬지만 5월 수치는 시장의 기대를 맞췄음.
美 주간 실업수당, 1월 이후 최저 규모	노동부는 지난주(6일 마감기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보다 24,000건 감소한 60만 1,00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음. 이는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시장의 전망치보다 좋은 결과임. 당초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의 컨센서스에선 61만 5,000건이 전망되었음.

제목	주요 내용
세계은행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3%	세계은행은 11일(현지시간) 올해 세계 경제가 3% 가까이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지난 3월 내놔던 전망치인 -1.7%에서 하향 조정된 것임. 세계은행은 실업률 상승과 생산 위축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의 배경으로 제시했음. 세계은행은 아울러 개발도상국들이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500억~6,350억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음.
직원 45명 소기업, "사브 인수한다	스웨덴 고급차 제조업체인 코닉세그가 제너럴모터스(GM)의 스웨덴 자회사인 사브를 인수할 방침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 로이터에 따르면 코닉세그는 노르웨이 투자자들과 함께 이번 인수를 추진하고 있음. 이들은 이미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며 일부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음. 이에 대해 사브 측은 매각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을 거부. 다만 "7월 초 매각을 목표로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태 "하반기 경기호전 자신못해	그는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경제활동은 아직도 부진하며 단기간내에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하고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세계경제에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음. 이 총재는 "현재, 경기가 내려가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바닥인지 여부는 말할 수 없다"면서 "급속한 하락세는 끝났지만 앞으로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어떨지 등에 대해 불확실한 점이 많다"고 말했음.
금리 하락으로 주택구입 부담 완화	1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주택구입능력지수(K-HAI)는 전국 평균 72.9로 작년 12월 말의 82.3에 비해 9.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06년 12월 말의 72.2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이임. 이는 올 들어 주택구입 부담이 완화된 것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락한 데다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 주택구입능력지수는 기준치가 100 이상이면 주택구입 부담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주택구입 부담이 적다는 것을 의미.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